

「어린 왕자」를 읽는 눈 :
아동의 본질성과 교육적 길 - 성을 중심으로

A Reading Lens on *Le Petit Prince* focused on Children's
Reality and Educational In-path-ness

서 명 석*

더 이상 꿈꿀 수 없음은 죽음을 의미한다.
- 엠마 골드만

교육이란 관념을 재배치하여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드는 것이다.
- 화이트헤드

목 차

- I. 문제-물
- II. 텍스트의 열개
- III. 아동 본질성의 시추
- IV. 삶의 본질로서의 길 - 성
: 폐곡선에서 개곡선으로
- * 참고문헌

* 제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I. 문제-들

아이들에 관하여

칼릴 지브란

이번에는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한 여인이 말했습니다. 저희에게 아이들에 대하여 말씀해 주소서. 그러자 예언자는 말했습니다./그대들의 아이라고 해서 아이들을 그대들 마음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은 그대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왔을 뿐 그대의 것은 아니다.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지만 그대들은 아이들을 돌보는 관리자일 뿐 결코 소유자가 아님을 명심하라. 아이들은 신의 사랑이 충만한 삶을 갈구하는 신의 딸이요 아들인 것이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준다고 해서 생각까지도 억지로 심어 주려고 해서 안 된다.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가진 살아 있는 인격체다. 아이들에게 육체의 집을 마련해 준다고 해서 영혼의 집까지 지어 주려고 하지 말라. 아이들의 영혼은 아이들 스스로가 짓고 있는 내일의 집에서 그대들이 결코 들어갈 수도 없는 그들만의 집에서 살고 있다. 삶이란 과거로 되돌릴 수도 없으며 어제에 머무르지도 않은 것. 그대들이 현명하다면 아이들을 그대들과 똑같이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대들 자신이 아이와 같게 되려고 노력해야 하리라./그대들은 아이라는 살아 있는 화살을 날려 보내는 신의 활이다. 신은 진리와 자유가 충만한 이상향을 향하여 화살이 보다 빨리 그리고 보다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 그대들을 구부리고 있다. 신의 손이 그대들을 어루만지며 구부리고 있음을 기뻐하라. 그분은 날아가는 화살을 사랑하는 만큼이나 그 화살을 날려 보내는 활 또한 사랑하고 있으므로.[박철홍 옮김, 『예언자』(서울: 김영사, 2004), 31-34쪽.]

On Children

And a woman who held a babe against her bosom said, Speak to us of Children. And he said: Your children are not your children. They are the sons and daughters of Life's longing for itself. They come through you but from you, And though they are with you yet they belong not to you. You may give them your love but not your thoughts, For they have house their bodies

but not their souls, For their souls dwell in the house of tomorrow, which you cannot visit, not even in your dreams. You make strive to be like them, but seek not to make them like you. For life goes not backward nor tarries with yesterday. You are the bows from which your children as living arrows are sent forth. The archer sees the mark upon the path of the infinite, and He bends you with His might that His arrows may go swift and far. Let your bending in the arrow that flies, so He loves also the bow that is stable.(해석 본에 의역이 심해서 원문도 아울러 실는다.)

〈아동은 성인의 축소판이 아니다.〉 이 말은 이제 진부한 연사로 굳어졌다. 그럼에도 이것이 정칙으로 진리[Logos·Truth]임을 증언하는 것은 아동의 본래적 독자성을 인정하려는 지평이 일리[logos·truth]로 그것 속에 녹아 있어 그런 것이다. 다시 말하여 두면 저 정칙은 아동과 성인 사이에 가로 놓여 있는 차이성의 궁극적 드러남을 촉발시키는 동력원과도 같은 것이리라.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 때문에 저런 정칙이 언제나 유효할 수 있나? 그 점이 석명되지 않고서는 저런 명제 자체에서 뽑어내는 진부함을 벗어나기 어렵다. 그것을 해결해보자.

그리하여 목하 이런 문제의식[문제-틀·problématique]을 해결해보도록 하겠다. 그것은 이렇게 질문형식으로도 정리될 수 있다. 아동과 성인, 그들이 〈얼마나〉 서로 다른 세계관에 거처하고 있을까? 그것이 교육적으로 〈어떤〉 해석의 통로를 열어내고 있는가? 아동의 독자성이 교육과 합류할 때 〈어떻게〉 개념의 망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것들을 다시 축약해서 말해두면, 이것은 아동의 본질성이 교육에서 길이라고 이름 붙여지는 길-성[길-性·in-path-ness]의 메타포와 만나는 접점을 논구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아동의 본질성을 시추하는 텍스트로 『어린 왕자』를 사용했다.

II. 텍스트의 열개

이 텍스트는 다음과 같은 내용 체제로 짜여져 있다.[여기서는 다음 버전을 주 텍스트로 삼아서 참고했다. 앙트완 드 생텍쥐페리, 강주현 옮김, 『어린 왕자』(서울: 문예당, 2001).]

* 텍스트 내용의 핵심적 간추림

- I. 삶은 놀람과 두려움의 무엇이다. 그리고 어른의 세계관과 내 세계관은 질적으로 다르다. 어른들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고정관념 속에 갇혀 산다. 그러나 나는 무한한 상상의 세계 속에서 산다. 예시, 보아뱀의 그림.
- II. 자기가 원하는 것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자기 스스로 찾는 것이다. 예시, 양그림.
- III. 우리가 사는 별은 작은 별 이기 때문에 그곳은 정주가 아닌 유목의 장소일 뿐이다. 예시, 소흑성 B612호.
- IV. 어른들은 세속성 안에서 살지만 어린 아이들은 동화성 안에서 산다. 타락과 순수의 대비를 이곳에서 보여준다.
- V. 삶은 나무 가꾸기와 같다. 좋은 나무를 기르듯이 내 삶을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해악만을 일삼는 바오밥나무 같이 된다.
- VI. 삶은 쓸쓸하기도 하고 슬픈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는 해를 보면서 마음의 환해짐을 챙기는 지혜가 필요하다.
- VII. 자신의 마음속에 자신만의 꽃이 있다.
- VIII. 꽃은 보호의 대상이면서 또 관찰의 대상이다.
- IX. 그 꽃과 작별하여 새로운 이주를 꿈꾼다.

- X. 왕이 사는 별 여행
- XI. 허영쟁이가 사는 별 여행
- XII. 술꾼이 사는 별 여행
- XIII. 실업가가 사는 별 여행

- XIV. 가로등을 켜는 사람이 사는 별 여행
- XV. 지리학자가 사는 별 여행
- XVI. 지구별 여행
- XVII. 아프리카 사막 여행. 그리고 그곳에 사는 뱀과의 만남
- XVIII. 사막 여행. 사막에 핀 꽃과의 만남
- XIX. 높은 산의 여행

XX. 장미꽃밭의 여행

XXI. 여우와의 만남. 길들이기로서의 관계맺음. 교우관계의 시간성. 시간의 질적 차별성

XXII. 전철기를 조작하는 사람과의 만남

XXIII. 상인과의 만남

XXIV. 작가와 어린 왕자의 우물 찾기

XXV. 작가와 어린 왕자의 우물 발견

XXVI. 작가와 어린 왕자와의 이별

XXVII. 남은 정감의 기록

인간은 유목적 존재(Homo nomad)다. 이 때 유목적은 정주와 대척의 관계에 놓인다. 머무름이 정주라면 유목적은 이동함이다. 그리고 유목적은 포스트-모던의 지형학에서 긴요하게 원용되는 개념군의 한 코드이기도 하다. 모던이 한 곳에 중심을 두고 그 중심을 거점으로 하여 사유의 세계를 확장해 나간다면, 포스트-모던은 중심의 해체를 말하면서 리좀의 사유를 응원한다. 이 리좀(rhizome)은 가타리와 들뢰즈가 구상하는 철학적 용어이다. 그들은 이 리좀을 들어 유목적 사유의 원형을 구안한다. 정초로서의 뿌리가 있고, 그 뿌리를 중심으로 나무와 가지가 질서 정연하게 구조를 이룬다. 이것은 수목적 방식이다. 이것이 근대라면 탈근대적인 리좀에서 어떤 정해진 중심은 없다. 이 때 리좀은 일종의 덩이조직과도 같은데, 무수한 뿌리 조직에서 한 부분을 떼어내어 이식해도 그것은 새 생명을 움터내는 한 중심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유목적 리좀적 설명이다. 한 곳에 정주는 없다. 끊임없는 이주를 통하여 삶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사유의 방식이 텍스트의 전편을 관통하며 흐른다.

정주의 매 공간이 텍스트에서는 각각의 별로 구체화된다. 따라서 어린 왕자가 별들을 여행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유목을 일러준다. 정주는 없고 유목적만이 있다. 그러면서도 각 세계에 대한 배움의 눈을 떠간다. 그래서 삶은 여정이다. 여정은 여행을 보다 깊이 있는 개념으로 승격시킨다. 여행이 다소간 정해진 틀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동하

는 타발적 수행의 수동화라면, 여정이란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것에는 정해진 규칙과 틀이 없다. 그 때 그 때 마다 자신의 능동적인 선택에 의하여 삶의 새 경지로 힘차게 도약하려는 자발적 움직임이 여정의 개념구상이다. 우리들이 학창시절에 경험했던 수학여행을 연상해 보라. 그것에는 자신의 존재론적 설계는 없고, 이미 정해진 여행 진행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나간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삶의 확장이라 보기 어렵다. 그것은 내가 또 한번 하루의 일과로 소화해야 할 과제로 우리 앞에서 우리를 부를 뿐이다. 이렇게 본다면, 여행(trip)과 여정(journey)의 구분선은 간단하다. 둘이 똑 같이 길떠남이지만, 여행이 중심이 있는 정주의 공간으로 다시 돌아옴을 전제하는 다소 타발적인 것이라면 여정은 중심의 해체를 통하여 다른 중심을 찾으려고 하는 존재론적인 모험의 자발적 소산이다. 어린 왕자가 이 텍스트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길을 떠나는 구체적인 여정이 바로 그것인 것이다.

존재론적인 모험은 단순한 여행의 부산물이 아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정주라는 한 곳의 머무름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을 때 찾아드는 삶의 유목적 방식의 결실이다. 그래서 삶은 언제나 모험-걸기이다. 즉, 이 삶은 미지의 세계에 대하여 모험을 걸어가는 활동인 셈이다[Life is venturing of future]. 그러면서 존재가 새 도약의 경지 안에서 새롭게 부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 텍스트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이 소절을 요약해 놓자. <하나: 인간은 유목적 존재이다. 둘: 삶은 여정이다. 셋: 우리 삶은 또한 미래에 대한 모험-걸기이다.> 이것들을 이 텍스트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Ⅲ. 아동 본질성의 시추

초등교육에서 아동은 우리들의 영원한 친구이자 탐구의 대상이다. 그래서 아동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초등교육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우리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할 문과 같다. 지금부터 그 문을 성인과 대비시켜 보면서 두드려보자.

아동은 순수한 존재이다. 그러나 성인은 타락한 존재이다. 이 둘은 물론 대척 간에 놓여 있다: <순수함 대 타락함>. 순수는 원본이다. 원본이기에 때가 묻지 않고 깨끗하다. 반대로 타락함은 순수 위에 먼지가 올라타듯이 더러워짐이다. 그러기에 타락은

여기서 성적으로 문란한 것과 같은 윤리적 차원을 운반하지 않는다. 아동의 본성(natura)은 순수하다. 이것이 순수성인데, 다르게 말하여 그것은 아이-다움(child-like-ness)이다. 이 아이-다움은 아이들의 유치함(child-ish-ness)과 다르다. 유치함이 세련성의 정도에서 조잡하고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를 품고 있다면 순수함, 즉 차일드-라이크-니스는 저런 부정이 아니라 궁극적 아름다움으로서의 긍정성을 띠므로 어떤 것으로부터의 물들의 상태에서 벗어나 있음을 연표 한다. 아동의 동심도 그렇다는 점에서 보면 순수하다. 이것을 치기(稚氣)로서의 미숙으로 보면 안 된다. 그러나 성인은 세속의 때가 그들의 심성 속에 잔뜩 묻어 있다. 즉, 그들은 속물주의(snobbism)에 빠져 있는 것이다. 삶의 무거움으로서의 중력이 자연스레 그들을 속물화(俗物化) 시킨다. 이것은 결코 나쁜 의미가 아니다. 성인들의 삶이란 세월의 더께 속에서 저절로 속화된다. 그리고 더께는 그들에게 세월의 무게를 안겨준다. 그러면서 그들은 속화됨이라는 생의 선물을 가슴에 훈장으로 달고 산다. 실제 이 텍스트에서 어린 왕자가 속물화된 인간들 - 왕, 허영쟁이, 술꾼, 그리고 실업가 - 을 만나보고서 한결같이 “어른들은 정말 이상해(67쪽; 69쪽; 70쪽; 74쪽)”를 연발하는 것은 이 점을 압축해서 말해준다.

또한 아동은 유연한 존재이다. 반면 성인은 굳은 존재이다. 이 둘도 서로 대척 간에 놓여 있다: <부드러움 대 딱딱함>. 이것은 사유방식에 대한 형용의 표현이다. 아동은 그들의 사유방식에서 유연하다. 반면, 성인은 그들의 사유방식에서 굳어져 있다. 이 부분을 <텍스트 I>에서 다룬다(35~37쪽). 보아뱀 그림이 그것이다. 얼른 달려가서 그곳을 펴보자. 여기에는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의 그림이 등장한다. 그런데 어른들이 보기에 이 그림은 천편일률적으로 모자일 뿐이다. 그들에게 다른 생각의 여지는 없다. 하지만 작가(생텍쥐페리)가 그린 것은 보아뱀이 코끼리를 삼킨 후 소화시키고 있는 그림이다. 얼핏 보아 그것은 어른들이 즐겨 쓰는 중절모를 닮았다. 그러니 그들이 보기에 그 그림은 언제나 모자일 뿐이다. <굳어-있다>는 것은 규격화와 통하며 이것은 <틀-가두기>이다. 이미 틀은 있고 그 틀에 모든 것을 맞추는 방식이다. 성인들의 사유가 이런 방식이다. 그들은 이미 자신의 틀을 가지고 있다. 물론 여기서 틀이란 세계관인데 그 틀로 세계를 재단한다. 다른 여유는 없다. 그 틀이 동시에 그들의 선입견이고, 그것이 교조(dogma)와 사견(doxa)으로 그들에게 작용한다. 이 틀의 도움으로 그들은 한 치의 오차를 남기지 않고 살아간다. 그러나 그 틀이 있음으로 해서 세계를 하나의 고정된 시각으로 재단할 위험성이 그 속에 잠복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틀은 그들에게 무의식적으로 획일화를 강제하는 동력원이 될 수도 있다. 이 점이 어렵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들의 사유가 유연하다. 이 점 때문에 그들은 자유자재로 사고한다. 성인이 보아 때로는 해괴하고 때로는 황당하게 사고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그들의 사고 자체가 그렇게 진폭이 크다는 말이겠다. 이 점으로 해서 아이들은 사고방식, 즉 세계관에서 <틀-넘기>의 사고 유형을 가진다. 엄밀하게 말해서 <틀-넘기>는 성인들이 쳐 놓은 틀을 고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틀-넘기>이지 <틀-자유로운-것>이 본의에 더 가깝다. 하여간 그것이 <틀-넘기>이든 <틀-자유로운-것>이든 어느 것에 상관없이 아이들은 어떤 고정화된 틀에 의존하거나 매달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어른과 사뭇 다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틀-자유로움>이 어른들에 의한 주입의 희생양으로 전락할 위험성을 그들은 또 태생적으로 안고 있다.

또한 아동은 상상적 존재이다. 하지만 성인은 비-상상적 존재이다. 역시 이 둘도 서로 대척 간에 놓여 있다: <상상력이 풍부함 대 상상력이 빈곤함>. 아이들은 상상력이 풍부하다. 그러나 성인은 그렇지 않다. 상상은 공상과 다르다. 또 상상은 낭만적인 것보다도 소통한다. 상상은 꿈이다. 그러나 낭만은 꿈과 같다. 이 꿈은 현실에 기반하지 않는다. 꿈은 현실이 아니라 이상을 지향한다. 일단 각설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음과 같이 성인과 아동 사이의 본질을 대비적으로 읽을 수 있는 짝-개념의 집합으로도 정돈해 볼 수 있다.

※ 아동과 성인의 본질을 읽을 수 있는 대비적 개념 - 쌍의 집합

아동 / 성인
 순수함 / 타락함
 부드러움(soft-ness) / 딱딱함(hard-ness)
 무계산적 / 계산적
 농업적 / 상업적
 가소성 / 비가소성
 미결정적 / 결정적
 낭만적 / 비-낭만적
 상상력이 풍부한 / 상상력이 빈곤한

이상적 / 현실적

자연적 / 인공적

미래 지향적 / 현재(또는 과거) 중심적

낭만적 / 세속적

(여기서 개념군을 작성할 때 명사형이 어울리면 명사형으로, 형용사형이 더 적절하면 형용사형으로 적었다. 양식의 통일이 아니라 어휘가 갖는 뉘앙스를 더욱 살려서 이렇게 작성해 둔다. 다만, 이런 분류는 보편적 공통성이지 누구나 꼭 그렇다는 이분법은 아니다.)

저것들, 곧 위의 모든 짝-개념들이 각자 서로 간에 뒤엉켜서 각각 아동의 본질 그리고 성인의 본질을 구성해내는 개념망의 틀-거리를 제공한다. 잠시 접어두었던 상상에 대하여 다시 더 보자. 상상은 공상과도 다르다. 상상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아주 건전한 방식으로 자유로운 이상을 마음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이다. 반면 공상은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가운데 불필요한 이상함을 만드는 것이다. 이 둘은 이웃해 있지만 상상은 긍정성을 공상은 부정성을 미세하게 품는다.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이 상상[력]이 결과적으로 창의성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고, 또 공상은 자기 파괴로 이어져 망상에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풍부한 상상력은 무한한 창조가능성으로 이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이 텍스트에서 보여주는 작가의 그런 상상적 배치는 단순한 소설의 형식을 넘어서 아이들이 품을 수 있는 무한 상상력의 가능공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소략하게 살펴본 아동의 본질성은 <형상은 없지만 실재한다>. 좀 과장되게 말하자면 위에서 열거한 아동과 성인의 대비적인 개념-쌍들 중에서 아동항에 제시된 것들을 모두 용광로에 쏟아 붓고 끓이면 거기에 어떤 추출물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것이 곧 아동의 본질성이다. 이것이 또한 아동의 실재(reality)가 된다. 원래 실재라는 용어는 <어떤-세계-안에-존재하는-어떤-질서>를 뜻한다. 그러므로 아동의 실재란 아동의 세계 안에 존재하는 어떤 질서를 말하는 것이겠다. 아동은 언제나 '실재하는 [real]' 것이다. 그런데 그 아동은 다른 어떤 것들과 구별되는 '그것들-나름대로의-어떤-질서[-ity]'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아동의 실-재(real-ity)이다. 따라서 아동의 실재는 아동의 본질성과 같다. 왜냐하면 아동의 세계 안에 존재하는 그 질서가 아동의 실재라면 그것은 아동의 본질성과 곧바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위에서 제시한 아동과 성인의 대비적인 짝-개념 중에서 아동의 항목에 제시된 것들을 봄으로써 그것들을 통하여 아동의 본질성 곧 아동의 실재에 더욱 가깝게 근접할 수 있는 것이다. 아동의 실재는 형체가 없어도 실체는 있다. 형체가 없는 실체를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는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점을 우리들이 깊이 인식한다면 초등교육에서 아동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런 이해의 과정에서 『어린 왕자』라는 텍스트는 아동에 대한 풍부한 사유의 원천을 제공하기에 충분하다. 문제는 저와 같은 아동의 본질성이 실제 교육의 과정에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되고 있는가이다.

IV. 삶의 본질로서의 길-성 : 폐곡선에서 개곡선으로

교육은 아동의 길-성[길-性·in-path-ness]을 보호하고 육성할 책무가 있다. 그런데 우리 교육은 어떠한가? 본래 성인과 아동은 다른 삶[生]을 산다. 구체적으로 말해 두면 다음과 같이 정돈하여 말할 수 있다. 성인은 과거와 현재 <안>에서 살지만, 아동은 과거와 현재 너머의 <미래>를 향하여 산다.

<교육은 길이다.> 이 은유적 메타포는 교육을 명사형이 아닌 동사형으로 읽으려고 하는 포스트-모던 교육과정학의 담론배치와 만난다. 이 길이 곧 교육과정인데 그 길은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경주로, 다른 하나는 여정로.> 또한 경주로는 닫힌 쿠레레(closed currere)로 향하고, 여정로는 열린 쿠레레(open currere)로 통한다.

그런데 우리 교육이 아이들을 여정로로 안내하는 과정이 아니라 혹시나 경주로로 몰아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경주로로 몰고 간다는 것은 '정해진 길[The Way: 정주]'로 교사가 아이들을 몰아 부친다는 뜻을 함의한다. 이 속에서 아이들이 자신만의 '한 길[a way: 유목]'을 간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다>(* 대문자 길은 이미 정해져 있는 유일한 길을 뜻하고, 소문자 길은 아직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수한 길 중의 하나를 뜻한다.) 설사 한 길을 간다 하더라도 닫힌 쿠레레에서는 정해진 경주로를 이탈한 아이들을 교사는 어서 빨리 정해진 그 길 위에다 올려놓아야 한다. 교사는 닫힌 쿠레레에서 그런 힘을 끊임없이 행사한다. 그리고 철저하게 아이는 자신만의 길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구속받는다. 이 구조 속에서 여정의 설계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열린 쿠레레에서는 존재의 서사(narrative of being)를 구축할 수 있도

록 쿠레레가 편성된다. 이 틀 안에서 교육이란 자신만의 이야기[서사 : narrative]에서 삶이 시작되고, 자신이 주연이 되어 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여정이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기도 하다. 여기서 말하는 서사(narrative)는 이야기(story)와 구조상 아주 다르다.* 스토리는 원래 이야기이지만 내러티브도 이야기로 번역된다. 그러나 주체적인 존재-구조가 들어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데 내러티브에는 그것이 들어있고 스토리에는 그것이 들어있지 않다.) 스토리는 정해진 플롯이 있다. 그러나 내러티브에는 정해진 플롯 같은 것이 없다. 스토리에서 나는 언제나 관객이다. 그러나 내러티브에서 나는 항상 주연이다. 스토리는 내 삶과는 동떨어져 있는 이미 만들어진 이야기이다. 그러나 내러티브는 내가 실제 주인공이 되어 내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 점 때문에 스토리는 객관화의 산물이다. 그러나 내러티브는 주관화의 산물이다. 이렇게 스토리와 내러티브를 구분해 보았다. 물론 이야기는 근대적인 구성이고 서사는 탈근대적인 해체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아이들의 내러티브를 형성하도록 교육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

아이들에게는 <그들의 삶의 길[道 · path] 위에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 권리>가 있다. 이것을 은유적으로 길-성[길-性 · in-path-ness: 길-위에-있음]이라 부른다. 그 길-성을 형성해 나아가는데 만나는 무수한 것들 중에 학교가 제공하는 쿠레레도 한 몫을 담당할 뿐이다. 그런데 그 길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길이 아니다: “그러나 눈으로는 볼 수 없어. 마음으로 찾아해 해(105쪽).” 볼 수 없다고 해서 그 길이 정녕 없는 것은 아니다. 이 길은 그들에게 꿈과 같은 것이고 그 꿈은 현실이 아니기에 안보이지만 꾸준히 마음속에서 찾아 나가야 하는 희망의 길이다. 그 길을 교육이 만들어주어야 한다. 즉, 교육이 아이들에게 희망을 열어주는 길이어야 하리라. 어린 왕자가 여러 별을 여행하면서 자신의 길을 스스로 만들어 가듯이. 하지만 닫힌 쿠레레에서는 이런 길을 고무 · 장려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길을 억압 · 억제하는데 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그 쿠레레는 언제나 닫혀 있고 경쟁만이 넘쳐 나는 살풍경한 경주로이기 때문이다. 이 경주로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은 기계적인 스킴만이 난무할 뿐 나와 타자 사이의 운명적 만남이 주선되지 않는다. 텍스트에서 어린 왕자와 여우가 만나서 서로 나누는 길들이기(91~92쪽)의 참뜻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그래도 우리는 루쉰(魯迅)의 시를 읽으면서 새 희망을 품어야 하지 않을까? 아이들의 본질성과 그에 합당한 교육 안에서의 길-성을 다시 음미해보면서. 언제나 <희망만이 길이다>.

희망은 길이다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땅 위의 길과 같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진호, 「아동이해를 위한 교육현상학적 고찰: Saint-Exupéry의 『어린 왕자』에 관한 교육적 의미 탐색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30(1), 1992, 201~225쪽.
- 김승호, 『초등학교교육의 이해』, 서울: 교육과학사, 2005.
- 박상진, 『열림의 이론과 실제』, 서울: 소명출판, 2004.
- 발리스 듀스, 남도현 옮김, 『현대사상』, 서울: 개마고원, 2002.
- 스즈키 다이세츠, 서명석 옮김, 『가르침과 배움의 현상학』, 서울: 경서원, 2005.
- 앙트완 드 생텍쥐페리, 강주현 옮김, 『어린 왕자』, 서울: 문예당, 2001.
- 이옥현 편역·이철수 판화, 『희망은 길이다』, 서울: 예문, 2003.
- 이진경, 『노마디즘1, 2』, 서울: 휴머니스트, 2002.
-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김재인 옮김, 『천개의 고원』, 서울: 새물결, 2001.
- 칼릴 지브란, 박철홍 옮김, 『예언자』, 서울: 김영사, 2004.
- 클레어 콜부룩, 백민정 옮김, 『질 들뢰즈』, 서울: 태학사, 2004.
- Doll, William E., Jr, 김복영 옮김, 『교육과정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시각』, 서울: 교육과학사, 1997.
- Pinar, William F., et al., 김복영 외 7인 옮김, 『교육과정 담론의 새 지평』, 서울: 원미사, 2001.